

The second generation has a natural tendency to accept the status quo and to lose the vision of the first generation. Too often the second-generation experience is a second-hand experience. That phenomenon operates in the spiritual realm as well as in the political, business and other realms. Church history is filled with examples of it, and, sadly, so are many churches. The parents' zeal for the Lord Jesus Christ becomes the children's formalism and the grandchildren's apathy. God has only children, not grandchildren and great grand-children. Each generation must come to a li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ur and Lord. We see this truth most vividly in the book of Judges. Perhaps as we examine the Bible and see this phenomenon in action, we will be better able to guard against it in our own lives and in the lives of our second generation.

제 2 세대들은 현재 일어나는 상태들을 받아들이고, 일세대가 가졌던 비전을 잃어버리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 세대들의 체험이란 매우 종종 전 사람들이 했던 경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나 비즈니스, 혹은 다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문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러한 예들로 가득차 있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수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부모님의 열정은 자녀들에게 의례적 형식이, 손주들에게 냉담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자녀들이지, 손주들이나 증손주들이란 없습니다. 각각의 세대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믿는 살아있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 진리를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검토하여 이 현상을 실제로 일어난 행동 안에서 살펴 보는 것이, 아마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을 대비해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 봅니다.

1. The Impact of Joshua 여호수아의 영향력

Joshua was one of the great figures of the Old Testament. He was a great soldier, brilliant organizer, charismatic leader and a gifted administrator. But two characteristics stand out above all others in his life and account for the way in which God worked through him.

여호수아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위대한 병사이자 뛰어난 조직력의 소유자이고, 독보적인 지도자이자 재능있는 행정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던 방식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인생에는 다른 무엇보다 돋보이는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The first characteristic is Joshua's responsiveness to the Word of God. At the beginning of his leadership, as he faced the awesome task of succeeding Moses, God came to him with a promise and a challenge: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Joshua 1: 7-8). God promised Joshua prosperity and wisdom through obeying, reading and proclaiming his Word. Throughout his life, Joshua acted on that promise, and God honoured his obedience.

첫번째의 특징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의 지도자 초창기, 모세를 잇는 어마어마한 과제에 직면했을때,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과 도전을 가졌왔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7-8)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인한 지혜와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 그 약속대로 행했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높이 샀습니다.

Joshua's second outstanding characteristic was his active faith.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Joshua 1: 5). Trusting that promise, Joshua guided two million people toward the Jordan River in flood, and God cut off the waters so the people crossed on dry ground. In obedience to God's orders, Joshua marched the nation around the city of Jericho, and the walls of the city crumbled. By faith, he commanded the sun and moon to stand still in the valley of Aijalon, and they did.

여호수아의 두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여호수아 1-5). 그 약속을 믿으며 여호수아는 이백만명을 이끌고 홍수 속에 요단강으로 향했고, 하나님은 물을 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Judges 2: 6-13, 3: 1-6, Deuteronomy 6: 10-12, 8: 11-18, Exodus 17: 8-16)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주변을 행진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해와 달에게 아얌론 골짜기에 멈추어 있도록 명령하였고, 해와 달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Joshua was not a perfect man but God used him, not because of his gifts and abilities, but because he trusted God and ordered his life by the Word of God. As a result, God did great deeds for his people through Joshua. That is the thrust of v. 7 of Judges 2. Joshua kept Israel in the place of God's blessing: "The people served the Lord throughout the lifetime of Joshua and of the elders who outlived him and who had seen all the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One man, committed wholeheartedly to God and his Word, can make an enormous difference for good in the lives of God's people. One woman, living her life for Jesus Christ, can bring blessing to a whole group of people. If you will trust God and build your life on his Word, you can have a godly influence on your family, your workmates, your friendship group or your church.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재능이나 능력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순서대로 움직여 갔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실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2 장 7 절의 반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유지시켰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온 맘으로 매인바 된 한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선하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산 한 여인이 한 전체 그룹의 각자에게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축해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동료들과,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교회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될수 있습니다.

## 2. The Failure of the Second Generation 다음 세대의 몰락

But, as verse 8 reminds us, Joshua died – and his generation were all "gathered to their ancestors". And abruptly, in the middle of v. 10, we meet the second generation – and, with them, the situation entirely changes. "Another generation grew up who neither knew the Lord nor what he had done for Israel". What was the problem with the second generation? What was the nature of their failure? Was the problem ignorance, that the next generation did not know about the Lord God and his works? Surely that is incorrect. They were not uninformed of the events of the Exodus or of the conquest of Canaan. What they had not seen with their own eyes (and at least some of them had no doubt witnessed through children's eyes, the crossing of the Jordan River and the fall of Jericho), they had heard with their ears. It was not facts they lacked. No, it was not that they did not know about the Lord but that they did not know the Lord.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they did not acknowledge him. God and his works didn't matter to them, had no influence over them. They had become complacent about the living God and had forgotten how to walk in fellowship with him. They had lost touch with God.

그러나 여호수아 8 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여호수아는 죽었고-그의 세대 사람들은 모두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 절 중간에 우리는 돌연히 다음 세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몰락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그 사역을 알지 못했던 무지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들과 가나안의 정복을 듣지 못한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적어도 그들 중 몇몇은 틀림없이 요단강 건널고 여리고 성의 몰락을 아이의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정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련이 없었고 그들은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업적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저 무관심하였고 그가 어떻게 동행하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놓쳤습니다.

That is a perennial problem. One generation can rejoice in a living faith, enjoy intimate communion with God, embrace the kingship of Jesus over their daily life, even delight to teach their faith to those closest to them – and yet the next generation may come along and care nothing for that at all. It's not that they will formally repudiate everything. But there is a luke-warmness, a complacency, an apathy about amazing Biblical truths that they have heard from their parents and/or Sunday School teachers or Youth leaders. They may remain within the church in their own cold, dead, formal way. They cannot fathom what Paul calls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Judges 2: 6-13, 3: 1-6, Deuteronomy 6: 10-12, 8: 11-18, Exodus 17: 8-16)

my Lord” (Philippians 3: 8). The faith of parents does not necessarily become the faith of their children, as we well know.

이것이 계속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세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즐거워하며, 날마다 삶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기뻐합니다 – 그런데 다음 세대는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모든것을 뿌리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부 리더들에게 들었던 놀라운 성경적 진리에 대해 미적지근함, 무관심, 냉담함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냉정하고 죽은 그리고 의례적으로 교회안에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 (빌립보서 3:8)이 무슨 뜻인지 짐작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모님의 믿음이 굳이 필연적으로 자녀의 믿음이 되진 않습니다.

But why? Why did it happen back in the time of the Judges and why does it happen to us? Some of us have been brought up in fine Christian homes, we know all about the truths of God’s Word but there is a complacency about spiritual things in our lives that cripples us spiritually. We need to realize two things about this kind of complacency. The first is that hate is not the opposite of love – apathy is. Remember what the risen Lord Jesus said to the church in Laodicea: “So because you are lukewarm – neither hot nor cold –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Revelation 3: 16). To be apathetic, to be complacent in the face of Calvary is the greatest possible rejection of God. The second thing is that complacency grows like a cancer. That being the case, there is a warning to those of us who are older or more established Christians – apathy or complacency about spiritual things on our part can be a huge stumbling block to new and young Christians.

그렇다면 왜 일까요? 사사기 시대에 왜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들에게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중 몇몇은 훌륭한 그리스도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무덤덤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냉담한 태도에 관한 두가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번째 것은 미움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냉담함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오데세아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16). 무덤덤함, 갈보리의 목전에서 그저 무덤덤한 것은, 가장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두번째로는 그 무덤덤함은 마치 암과 같이 자란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더 나이 많고 확고한 크리스천인 우리들 몇몇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 우리안의 일부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냉담함과 무덤덤함은 새롭고 어린 크리스천들에게 거대한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What then was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second generation? Three factors stand out, above others, as we analyse what happened to the second generation. Firs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Joshua’s generation, the first generation, did conquer parts of Canaan, but they left pockets of the enemy untouched. Then the second generation came along. Their reaction was, “Why bother? We have all the land we need. Those Canaanites aren’t so bad – we can tolerate them”. God had given them a command to move out and take the land, but they refused to move out in faith. They were content and comfortable with the status quo. There has never been a first generation, no matter how great it is, that conquered all the land, that has been all God wants it to be. But the great temptations are to believe that their experience is either the standard for our experiences or that their ideals are beyond our expectations, and we should settle for something less. That is wrong. God’s plan is for the experiences of previous generations to be a foundation on which we can build. It is Satan’s lie to make us believe that the status quo is all there is. His strategy allows us to say that it does not matter that the Canaanites have the valleys, as long as we have the high country. We thank God for what has happened in the life of our church in the past – for faithful preaching, for effective outreach and support of missionary ventures, for the nurturing and equipping of believers – but we cannot be satisfied with simply reliving and reproducing the past; we need to be ready to go forward in faith embracing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the Lord puts before us.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세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분석해볼때, 다른 것들을 제치고 가장 두드러지는 세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현재 진행되는 현상에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일세대는 가나안의 일부분을 정복했지만, 적들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세대가 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왜 형제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수 있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뺏어나가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족했고 그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편안해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일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했던 전부인 그 모든 땅을 정복한 일세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유혹은, 그 일세대의 경험이 우리 세대의 경험의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Judges 2: 6-13, 3: 1-6, Deuteronomy 6: 10-12, 8: 11-18, Exodus 17: 8-16)

삼은 목표가 우리의 기대를 능가 할 것이므로, 우리는 더 작은 뭔가에 만족해야 한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대의 경험이 우리가 더 쌓아갈 것의 토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우리가 바로 있어야 할 전부라고 믿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높은 도시를 가지고 있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계곡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신실한 설교, 효과적인 전도와 미션 지역의 협력, 믿는자들의 양육과 사용함으로 인하여 -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다시 체험하고 재생산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ondly, they took God's blessings for granted and did not acknowledge him. God had warned about this years before it happened. In Deuteronomy 6: 10-12 and again in 8: 11-18 God issued a warning to his people through Moses as they prepar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It is a warning that still speaks to us, especially in the affluent Western world: "When you build fine houses and settle down, and when your herds and flocks grow large and your silver and gold increase and all you have is multiplied, then your heart will become proud and you will forget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Deuteronomy 8: 12-14). The great danger is that the enjoyment of God's blessings makes us blessing-centred rather than God-centred.

두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당연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시기에 관한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신명기 6 장 10-12 절과 다시 8 장 11-18 절에서,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풍요로운 서구 사회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를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느니라" (신명기 8:12-14). 이 거대한 위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축복 중심이 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Our attitude toward our blessings and possessions is one of the most determinative factors in our spiritual health. To be ungrateful about God's goodness, about his grace is not only foolish, it is dangerous. We need to recognize the subtlety of our sinful hearts. In our desperation, we call upon God to meet our needs and, in his infinite grace, he does. Then, with a dose of spiritual amnesia, we begin to take the credit for God's blessing. Israel looked at the land they possessed and said, "Look at what we did! Look at the wealth we have created". They became man-centred in their view of life, and, by their attitude of self-congratulation, they sowed the seeds of self-destruction. That is why the Word of God commands us to give thanks in everything (1 Thessalonians 5: 18). This is God's expressed will for every Christian. It is so important then, in our personal lives, in our families, and in our fellowship in the body of Christ at Canterbury to cultivate and nourish a spirit of praise and thanksgiving. Apathy dies where praise and thanksgiving flourish.

우리의 축복과 소유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단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음은 단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은 우리 마음의 간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급박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그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영적 망각의 투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공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소유했던 땅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보아라! 우리가 이룬 부를 보아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 안에서 인간 중심이 되어, 자축의 자세로 인하여 자기 몰락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데살로니가전서 5:18) 명령했는지에 관한 이유입니다. 이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표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속에서, 우리 가족안에서, 우리 캔터베리 교회의 지체들 간의 교제에서, 찬양과 감사의 영이 충만케하고 양성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Thirdly, they neglected God's Word. It is astonishing to discover almost no reference to the study of Scripture in the book of Judges. What was so central in Joshua is peripheral in Judges. The people possessed the Word of God (the Pentateuch – first 5 books of the Bible) but chose to ignore it. It is almost as if it were not written at all. Increasingly it is sad to say that there are churches in the western world that are doing the same thing! In Judges we find that, ritually, the people did many of the things the Law required, but their obedience was based on tradition, not on personal biblical conviction. There is an enormous difference between a direct and an indirect relationship to Scripture. Two people may give the same answer to a particular issue, but, on the lips of one, the answer is hollow.

(Judges 2: 6-13, 3: 1-6, Deuteronomy 6: 10-12, 8: 11-18, Exodus 17: 8-16)

His convictions are second hand, something he has heard from parents, teachers or friends. The other person’s answer rings with the authority of personal conviction. He has been studying God’s Word himself, thought about and prayed about the matter. That Christian knows the fresh dynamic experience of walking with Jesus Christ in his Word. Beware of second hand convictions and second hand experiences! Don’t neglect the Word of God!

세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의 기록을 거의 발견할수 없다는 것은 정말 깜짝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사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 오경-구약의 처음 5 권의 성경) 지녔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마치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한것은, 그와 똑같은 것을 하는 많은 서구 교회들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그들의 순종은 전통에 따른 것이지 개인적인 영적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이슈를 놓고 같은 의견을 낼수는 있지만, 한명은 그저 입술로만 하므로, 그의 답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의 신념은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으로, 그가 부모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해 들은 원가입니다. 또 다른 한사람의 답변은 개인적 신념의 권위를 올립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해왔고,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크리스천은 말씀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선하고 역동적인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확신과 다른 사람이 겪은 체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하지 마십시오!

**3. God’s Strategy Against Complacency 냉담함에 대항한 하나님의 전략**

God did not leave the second generation to wallow in their apathy. His strategy for moving them forward is spelled out in vv. 1-2 of Judges 3. The Lord allowed unconquered nations, pockets of resistance, to remain “to teach warfare to the descendants of the Israelites who had not had previous battle experience”. Was God interested in giving Israel some kind of technical instruction in military strategy? Obviously not. God desired a group of people who knew how to trust him in battle. Early in Joshua’s career, he had learned, in a battle against the Amalekites at Rephidim, that the Lord is the Banner of his people – the One who leads into battle and brings victory (Exodus 17: 8-16). Victory does not come from man’s courage or wisdom or skill – it comes from a faithful God. That is the lesson God wanted those inexperienced soldiers of the second generation to learn.

하나님은 2 세대들이 냉담함에 허우적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그의 전략은 사사기 3 장 1-2 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정복되지 않은 열국, 저항의 여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몇가지 군사 전략에 관한 기술적 교육을 전수하는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그를 신뢰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고 있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업 초기, 그가 르비딴에서 아멜렉과 싸울때 이미 그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백성의 승리자 -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가져온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7:8-16). 승리는 인간의 용기나 지혜 혹은 기술로 가져와 지지 않았습시다 -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2 세대의 미경험의 병사들이 배우기 원하시는 교훈입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why God did not take away your sinful nature when you trusted him? Why are there so many areas of weakness in your life and such difficult problems and obstacles to overcome? Why are there so many needs around you to fill? Are you ever puzzled because there are no perfect churches, but unsolved problems exist in even the most biblically faithful congregations? At least part of the answer is found in Judges 3: 2. The Lord uses those difficulties to teach us how to wage spiritual war. He wants to shake us out of our complacency and apathy and teach us to trust him. Often it is only when the enemy has run all over us, and our resources are exhausted, that we develop a teachable spirit. There are times in our lives when everything seems too much, things fall to pieces. Those times of failure and crisis become teaching times, learning times, as the Lord shows us how to fight the spiritual battle – how to fully trust him.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많은 천성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는지 궁금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삶에는 여러 분야의 약함과 극복해야할 장애물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주변에는 채워야할 많은 필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껏 왜 완벽한 교회도 없고, 가장 성경적으로 신실한 회중에서조차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해 본적이 있나요? 그 답은 최소한 부분은 사사기 3:2 절에서 발견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우리의 무덤덤함과 냉담함에서 흔들어 우리가 그를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고갈되었을때, 우리는 종종 가르침을 받아들일수 있는 마음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지나칠 정도로 보이고 일들이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Judges 2: 6-13, 3: 1-6, Deuteronomy 6: 10-12, 8: 11-18, Exodus 17: 8-16)

어떻게 영적전쟁을 싸우어야 할지, 어떻게 그를 온전히 신뢰해야 할 지를 보여 주실 때, 이러한 실패와 위기의 때는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입니다.

The implication of this strategy of God in our lives is clear, isn't it? We cannot stand still in our Christian life and experience. We must advance in the spiritual battle in which we are engaged. If we try to stand still, we can be sure that "the rulers, ..... the authorities, .....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against which, as Paul reminds us in Ephesians 6, we contend, will not. Either we advance, or we perish. There are areas of need in our lives. There is ground to be won in our families and in our church. There is ground to be won for Christ in our city of Melbourne and indeed throughout the world.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작전의 실행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과 체험 가운데 가만히 정체해 있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류된 영적 싸움속에서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서있으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6 장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정사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확신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하던가 소멸하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움받을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가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번이라는 우리의 도시에서 승리할, 실로 이 세상 전체에 걸쳐 승리할 영역이 있습니다.

An old man was travelling on a large cruise ship, when a storm blew up without warning. One woman lost her balance and fell overboard. People stood frozen with horror. Suddenly, a man plunged into the waves, grabbed her and kept her afloat until a rescue boat reached them. When they were pulled out and brought back to the ship, everyone was astonished and embarrassed to find that the hero was a man of 80. That evening they held a party to honour him. When they called on him to make a speech, he looked around at the people and then said, "I would like to know just one thing". There was complete silence as he continued, "Who pushed me?"

예고없이 폭풍이 몰아칠때, 한 노인은 커다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중심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파도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붙들어 구명보트가 그들에게 이를때까지 그녀를 물에 떠있도록 지켰습니다. 그들이 구조되어 배로 돌아왔을때, 모든 사람들은 그 영웅이 80 세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 위한 파티를 열던 저녁에, 그들은 그가 연설을 하도록 그를 불렀고 그때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한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누가 나를 밀었습니까?"라고 묻자, 완벽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Sometimes that is the only way we start moving and get into the action. The Lord will keep pushing us out of our apathy, out of our complacency into a fresh, vital experience of walking with the Lord Jesus Christ. I wonder are you already moving or do you need a push?

가끔은 그것이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에 착수하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인 예수님과 동행하여 신선하고 생동감있는 체험을 하도록 우리를 무관심밖으로, 무덤덤함 밖으로 계속 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밀려서 행동하시겠습니까?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